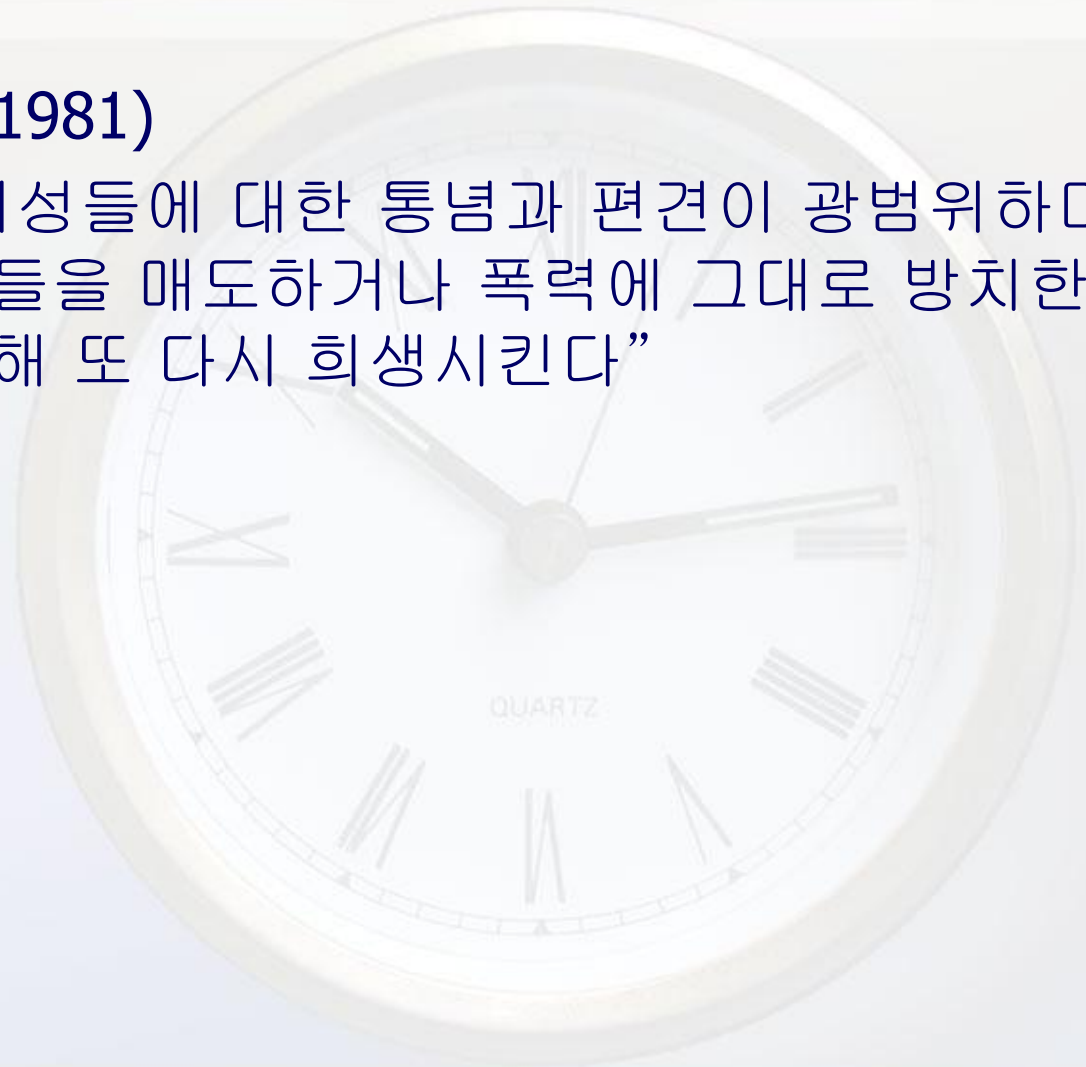


에린 피지

- 1974년
- ‘Scream Quietly or the Neighbors will hear’
- 매맞는 아내에 대한 첫 도서 출판
- 세계 최초의 여성 쉼터 등장 (Women’s shelter)
- 13년 만에 영국에서만 2000개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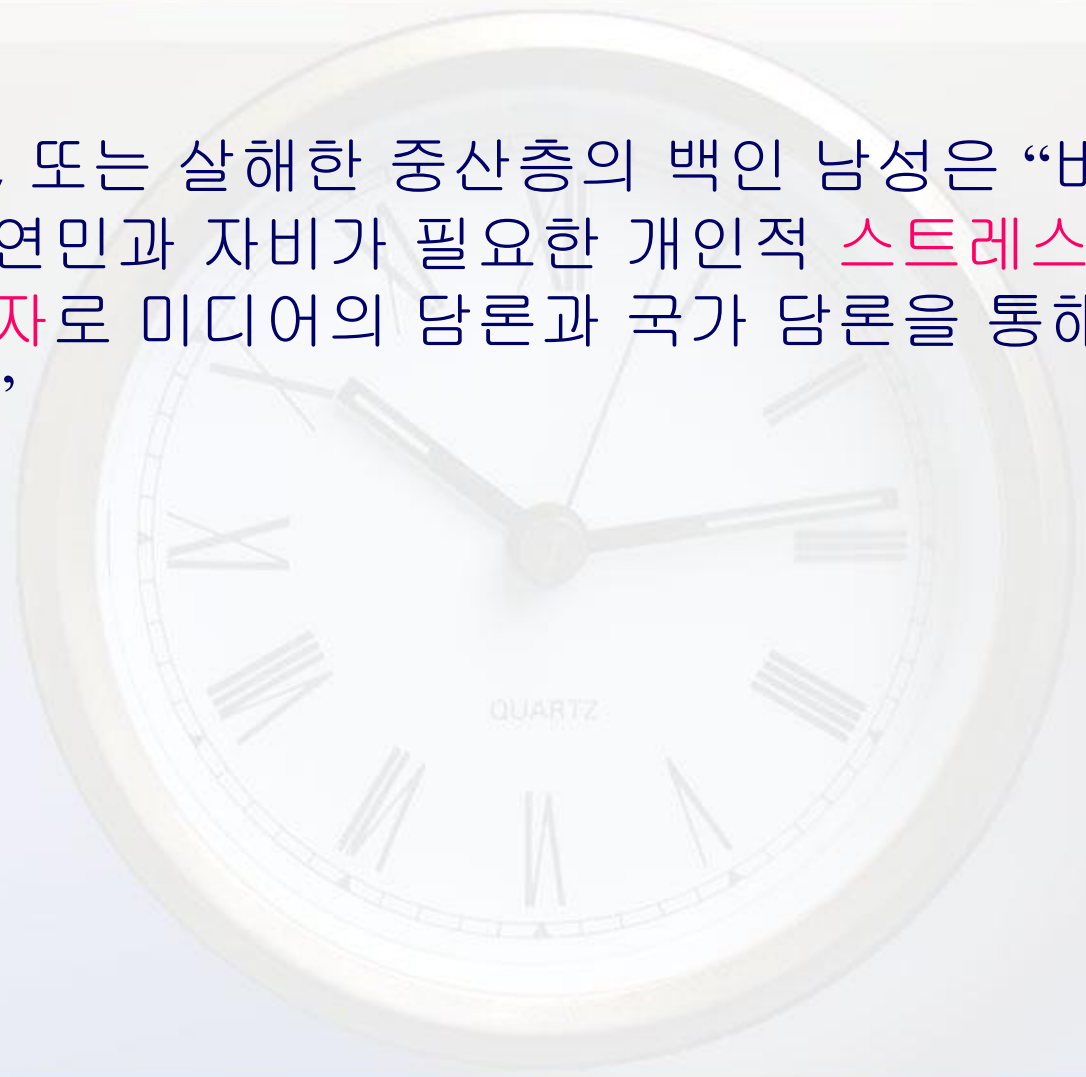
배우자 폭력

- Pagelow (1981)
- “매맞는 여성들에 대한 통념과 편견이 광범위하며 또 희생자들을 매도하거나 폭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유치토록 해 또 다시 희생시킨다”



Finn

- 아내를 구타, 또는 살해한 중산층의 백인 남성은 “비난과 통제보다는 연민과 자비가 필요한 개인적 스트레스나 분노의 희생자로 미디어의 담론과 국가 담론을 통해 구축돼진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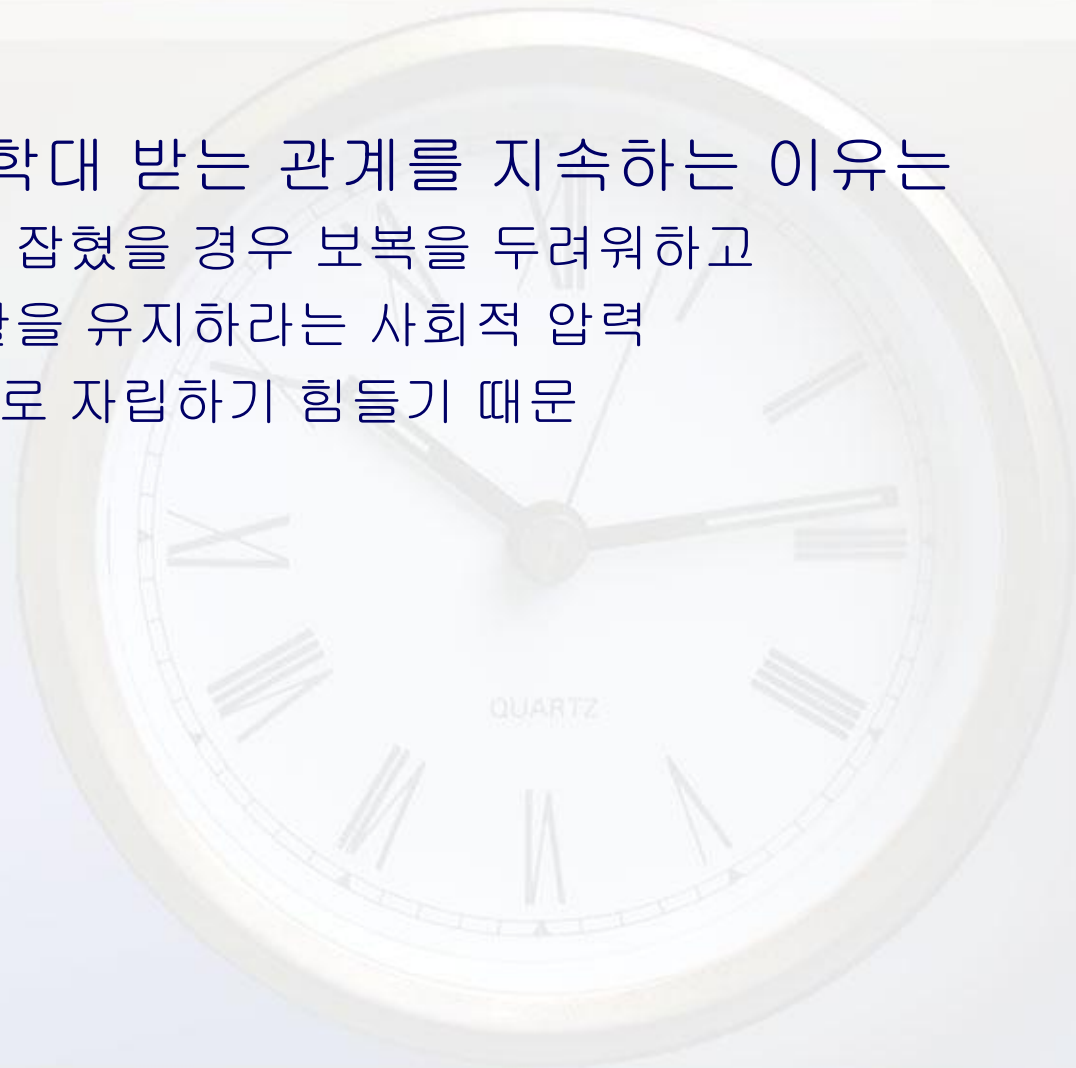


미국의 통계

- 3백 ~ 4백만의 여성들이 남편과 남자 친구들로부터 구타
- 두 명중 한 명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건 매를 맞는다
- 1990년 FBI 통계에 따르면, 살해된 모든 여성의 28%가 남편과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어
- 헤어질 경우 더 위험: 14배 높은 폭력

Martin (1976)

- 여성들이 학대 받는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
 1. 도망치다 잡혔을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고
 2.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사회적 압력
 3.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힘들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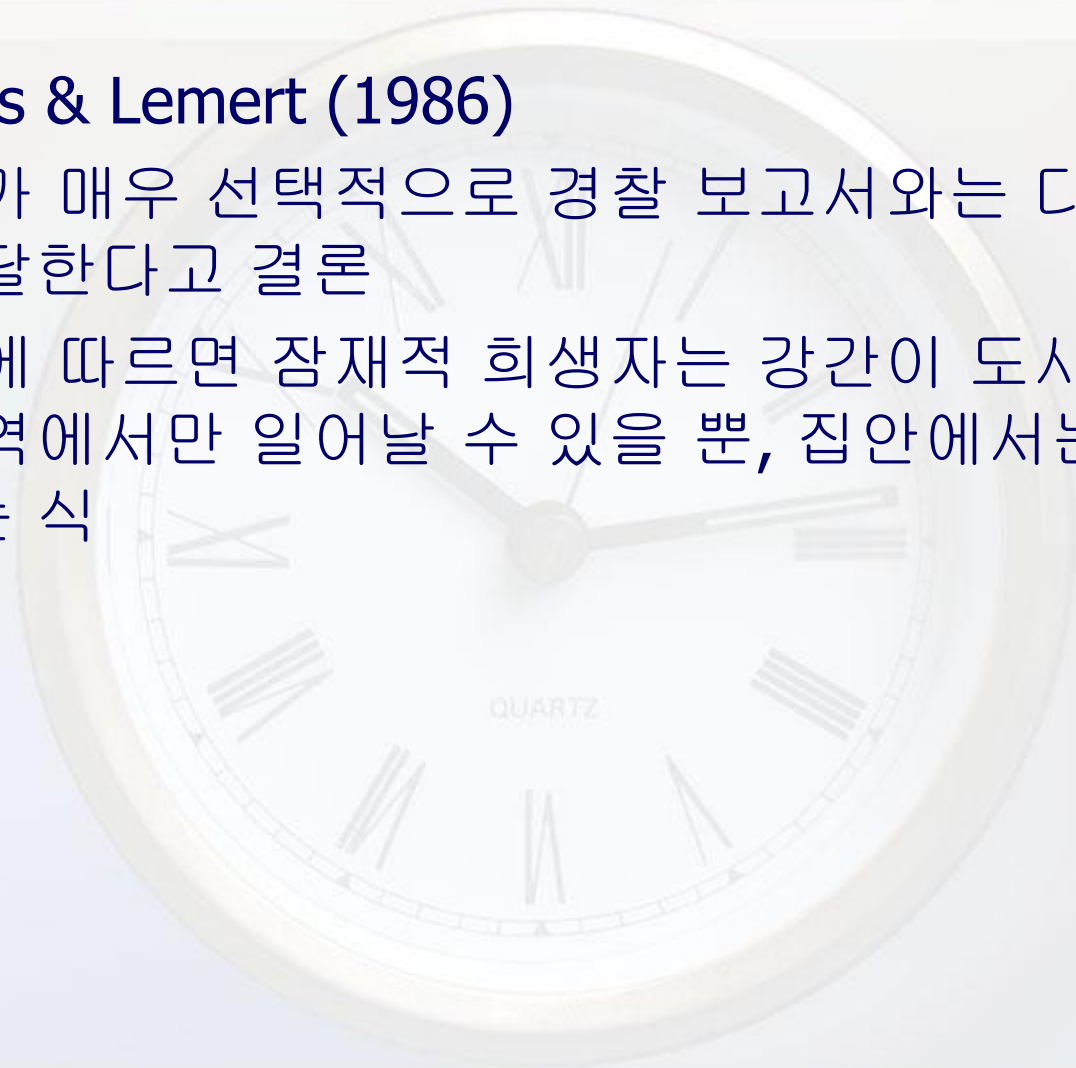


배우자 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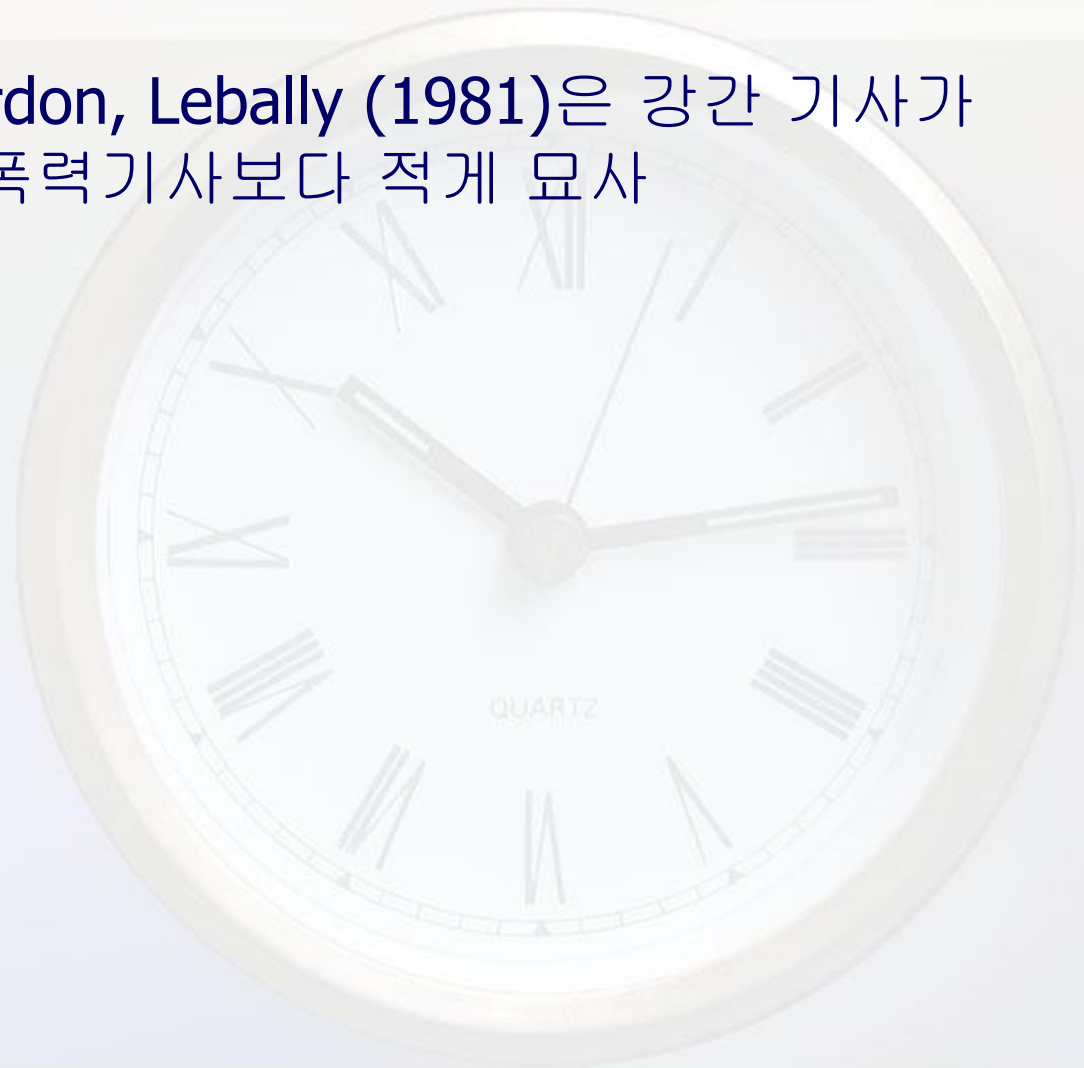
- 관련된 사람은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.
- 여성은 ‘매조키스트’이고 가해자는 ‘환자’다.
- 여성이 일을 자초한다.
- 두들겨 맞아도 같이 사는 이유가 있다.
- 매맞는 여성은 결코 항의하지 않는다.
- 폭력은 저소득, 근로자 계층만의 문제다.
- 구타는 문제 가족에게서만 발생한다.
- 구타는 사적이고 가정의 문제다.

강간 보도

- Schwengels & Lemert (1986)
- 강간 보도가 매우 선택적으로 경찰 보고서와는 다른 진실을 전달한다고 결론
- 보도 기사에 따르면 잠재적 희생자는 강간이 도시의 위험한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뿐, 집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식



- Heath, Gordon, Lebally (1981)은 강간 기사가 살인이나 폭력기사보다 적게 묘사



성폭력에 관한 언론 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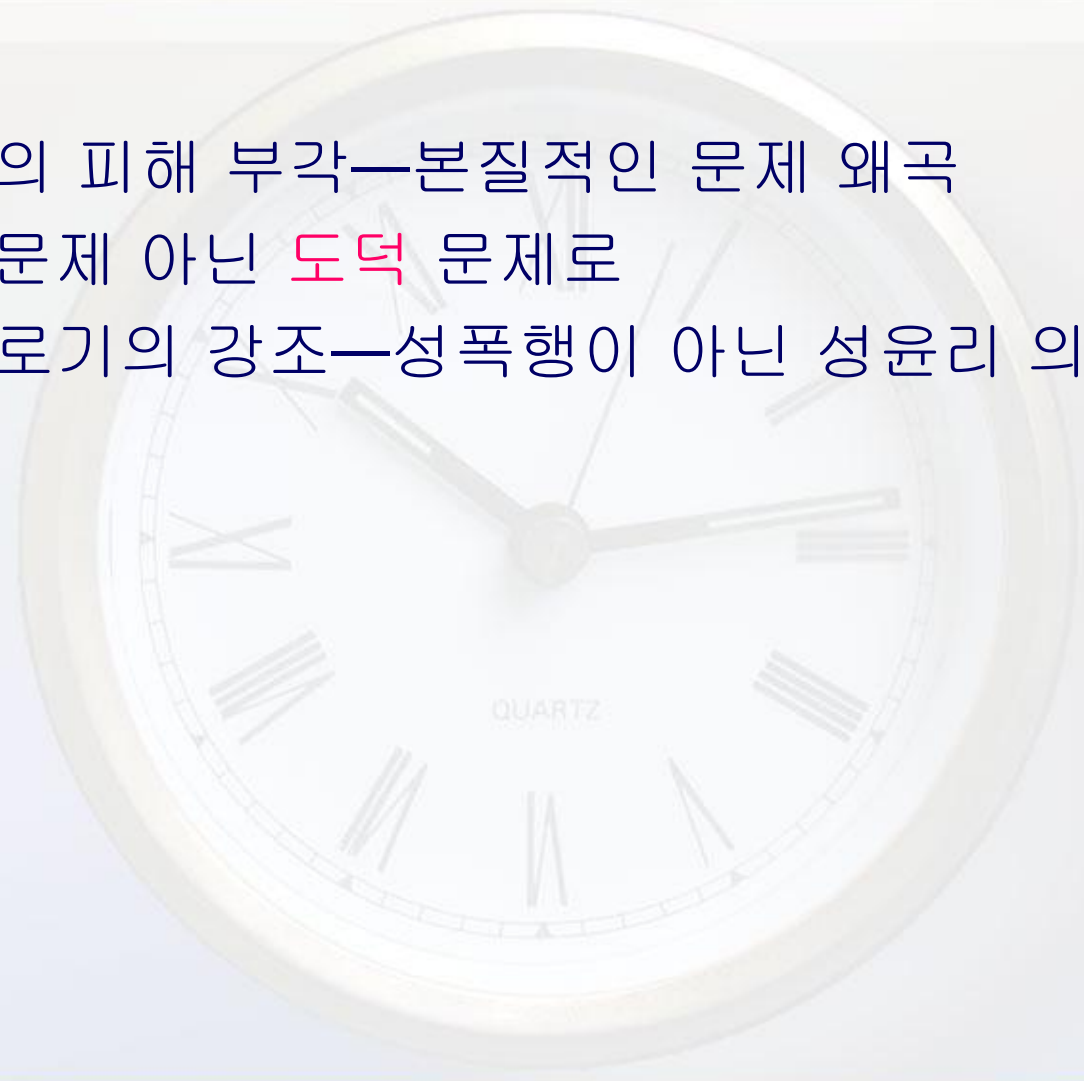
- 김선남 원광대 신방과 교수 연구
 1. 1996년 여중생 출산 기사 (조,중,동,한)
 2. 단순 나열식 보도: 사건 지향적, 폭로적
 3. 선정적, 흥미 지향적
'가정폭력 이럴 수가,'
'부자가 자취 여중생 성폭행 인륜파괴,' '이번엔 여고 교장이,'
'집사가 지체아 성폭행'...

여성 민우회

- 2007년 1월~7월
- 6개 일간지 모니터링(경향, 동아, 서울, 조선, 중앙, 한겨레)
 - 흥미 위주 기사 보도
 - ‘발바리,’ ‘빨간 모자,’ ‘산다람쥐,’ ‘원조 발바리’
 - 성폭력을 사랑싸움으로 묘사
 - “연애, 짝사랑 빛은 결과”
 - “결혼하려 했다”
 - 피해자에 책임 전가
 - “이혼 가정, 결손 가정에서 자라 가출했다가...”

3. 소외된 계층의 피해 부각—본질적인 문제 왜곡
이데올로기 문제 아닌 도덕 문제로

4. 순결 이데올로기의 강조—성폭행이 아닌 성윤리 의식의
부재



강미은 2003년 – 신문 보도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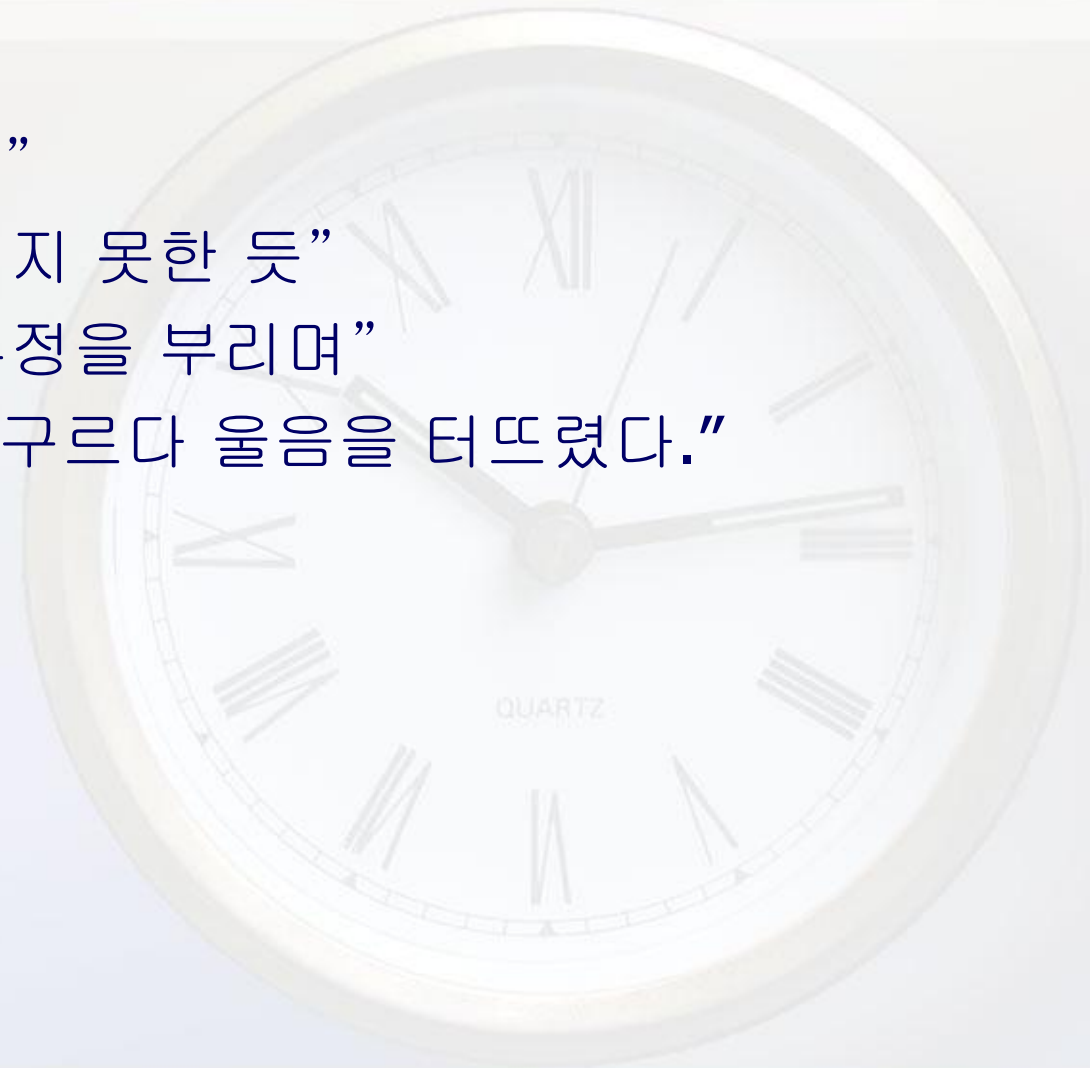
- 여성 관련 기사 극소수
- 가정, 생활 부문에 치중
-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
- 여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묘사
 - 수도권꼭지, 울보장관, 처녀장관, 강효리(강금실)
 - '해당 부처'의 힐러리
 - 미모의 장관, 미모의 중국/미국/러시아 대표
 - 치마 두른 남자, 억순이
 - 스커트 내각, 립스틱 칠한 입술의 설전

1993년 2월 YS 정권 출범

- “방송 활동 열심인 여변호사” 조선 93년 2월27일
- “텔레비전 사회도 맡은 여변호사 출신...새문안 교회 김동익 목사와 재혼했다” 동아 2월 26일
- “여성장관의 부임을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던 환경처는...” 동아 2월 26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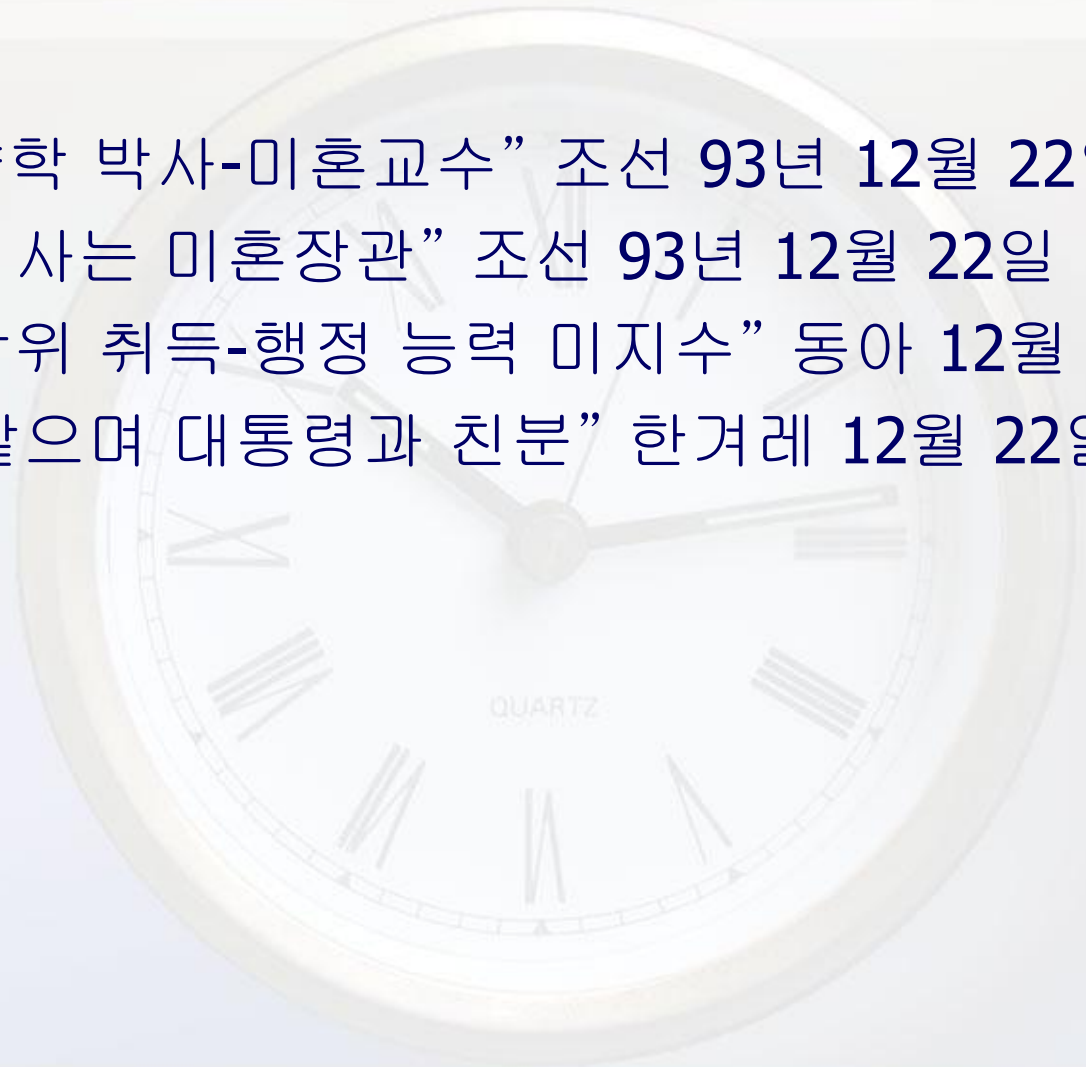
국회 인사 청문회

- “눈물 장관”
- “분을 이기지 못한 듯”
- “비속한 투정을 부리며”
- “발을 동동 구르다 울음을 터뜨렸다.”
- “울보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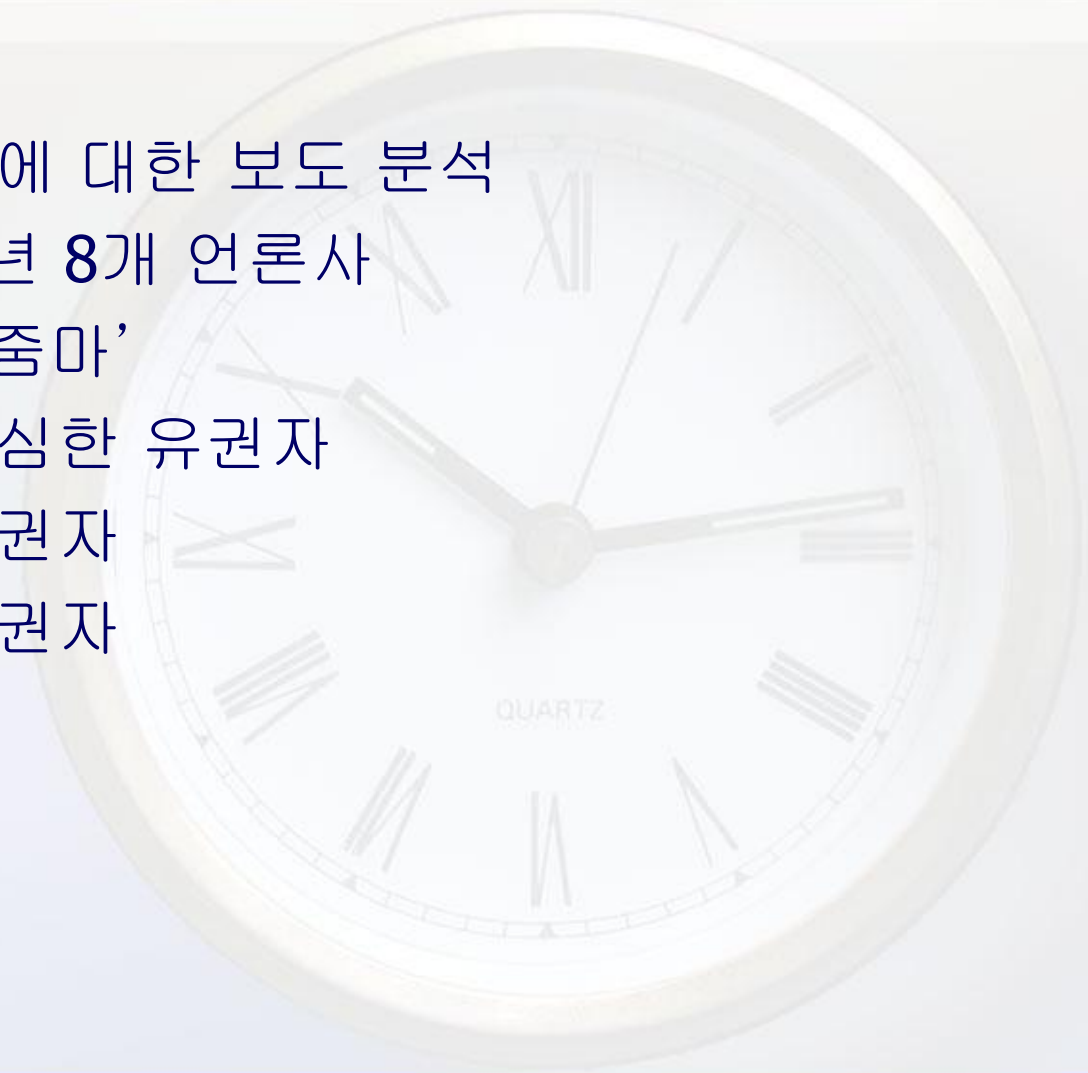
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

- “20대 때 영양학 박사-미혼교수” 조선 93년 12월 22일
- “85세 노모와 사는 미혼장관” 조선 93년 12월 22일
- “20대 박사 학위 취득-행정 능력 미지수” 동아 12월 22일
- “YMCA회장 맡으며 대통령과 친분” 한겨레 12월 22일



김세은·김수아 (2007)

- 여성 유권자에 대한 보도 분석
- 2000~2008년 8개 언론사
- ‘주부’ & ‘아줌마’
-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
- 부정직한 유권자
- 감성적인 유권자



- “주부들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. 일각에서는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여성 의원이 늘어남들 ‘나와 무슨 상관이람?’ 싶기만 하다.”

(2004년 3월 22일, <중앙일보>, “여성 의원 늘어야 정치 맑아져”)

- “총선 선거 운동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 ‘아줌마 파워’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.”

(2000년 4월 11일, <중앙일보>, “아줌마부대 인기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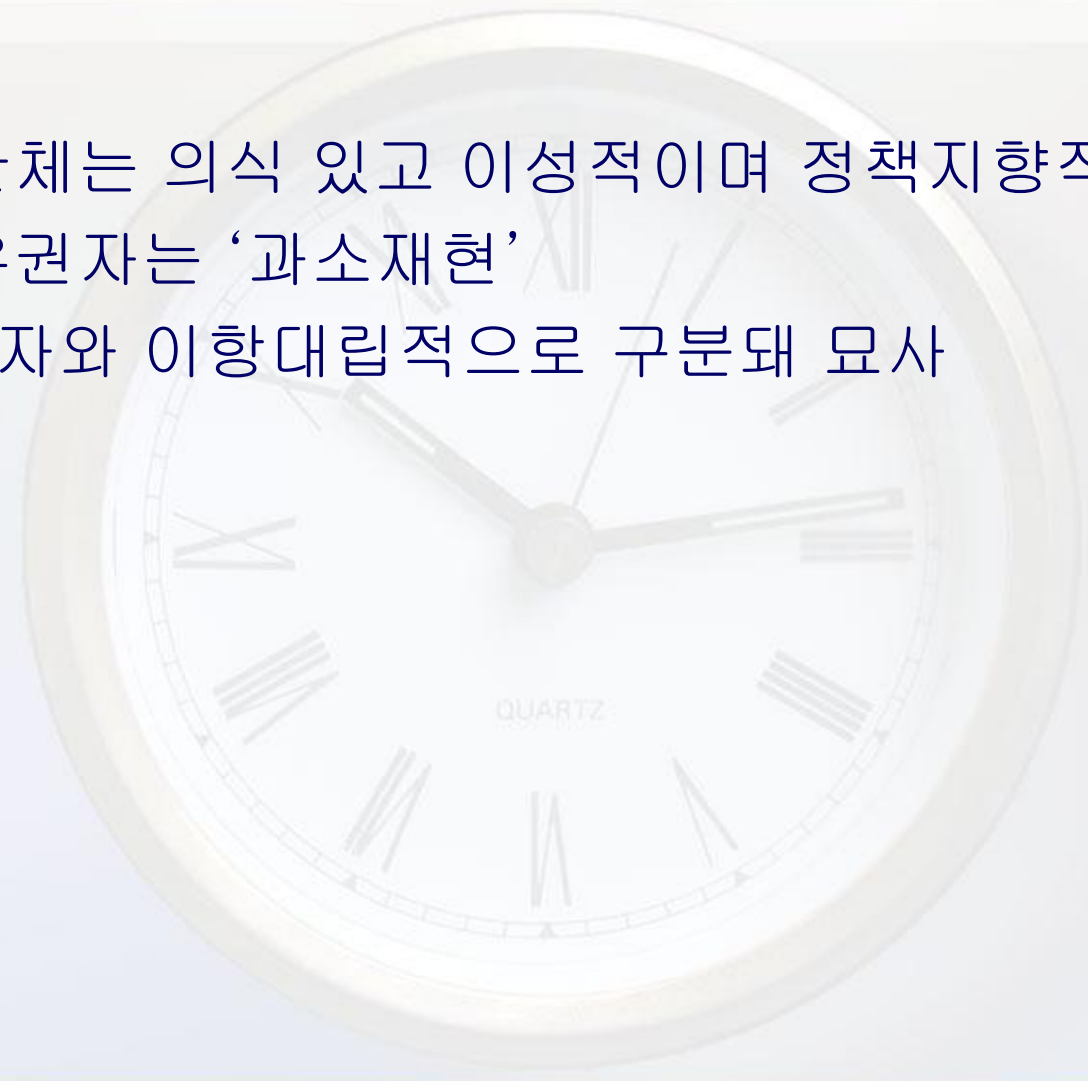
- “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주부는 그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시간만 보낼 뿐 감시활동은 하지 않았다.”

(2000년 4월7일, <중앙일보>, “불법 감시 70억 헛돈”)

- “후보연설이 시작되기 전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선거운동원들이 조직력을 과시합니다. 유세장을 메운 사람들은 대부분 3, 40대 주부들.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내세웠지만 대부분 일당을 받습니다. 선거 때문에 인력시장에서는 3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50% 정도 줄었습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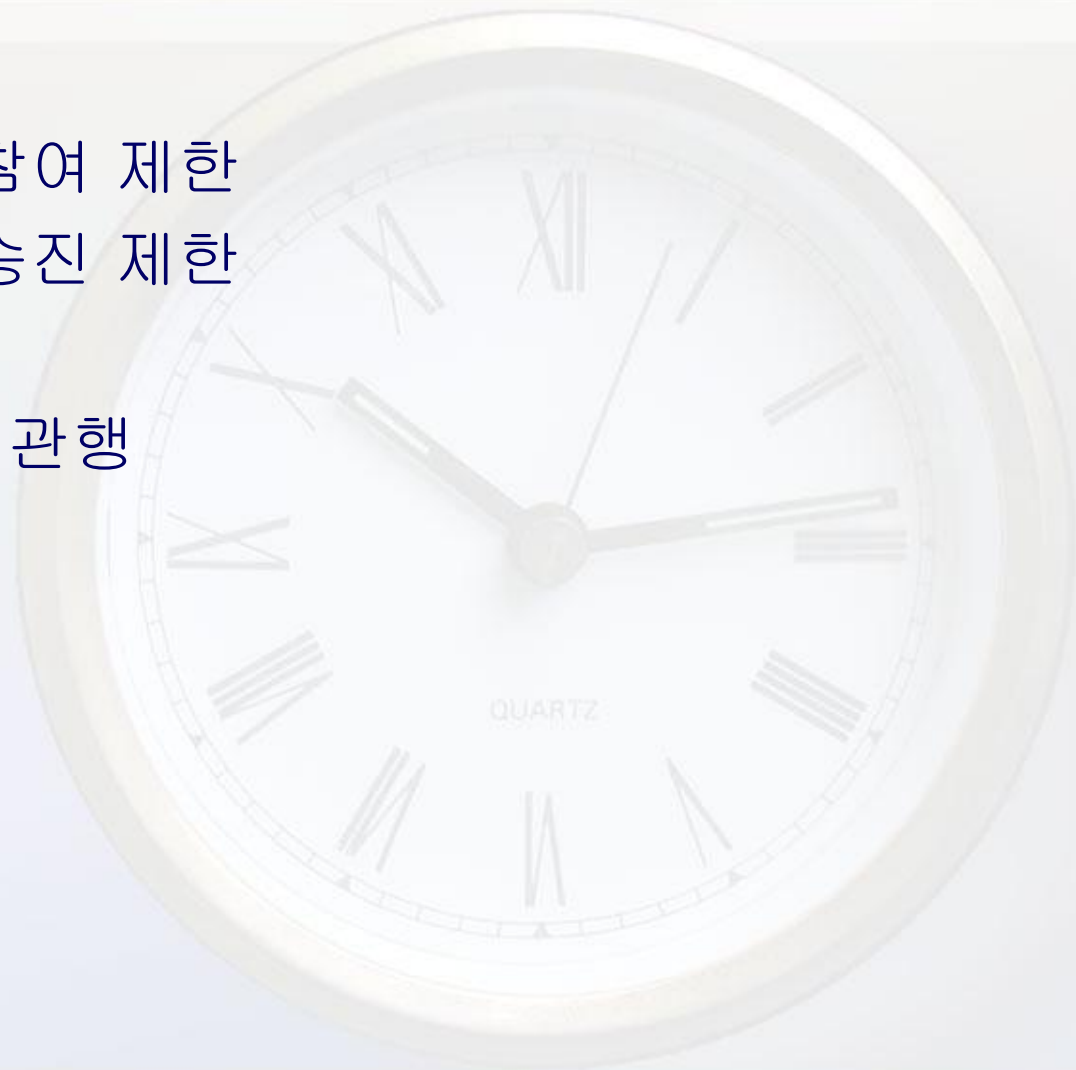
(2002년 6월 7일, MBC, “아줌마부대 극성”)

- 반면 여성 단체는 의식 있고 이성적이며 정책지향적
- 일반 여성 유권자는 ‘과소재현’
- 엘리트적 타자와 이항대립적으로 구분돼 묘사



언론 분야의 성 주류화 문제

- 수평 분리: 참여 제한
- 수직 분리: 승진 제한
- 소외
- 조직의 보도 관행



한국 언론과 여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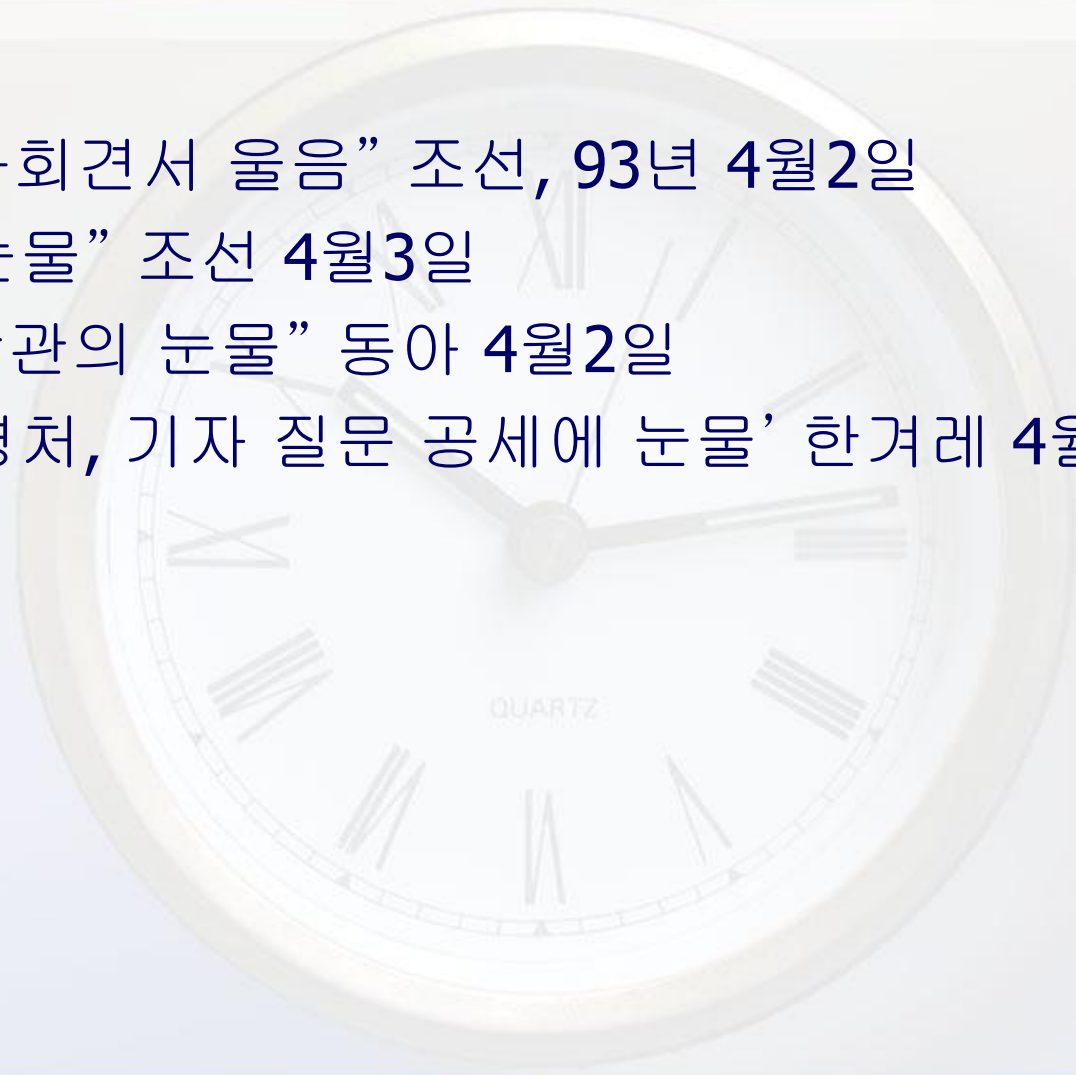
- 한국 여기자 협회의 2002년 12월 조사
- ‘중앙 18개 언론사의 언론인 현황’
- 여기자 10.5% (4402명중 462명)
 - 고위직 임원 (0.4%)
 - 국장급 (1.2%)
 - 부국장급 (1.9%)
 - 평기자 (80.7%)
- 한겨레 (17.8%) → 대한 매일 (16.2%) → 경향 (14.2%) ... 조선 (7.1%)
- 문화 (20.7%) → 편집 (20.3%) → 경제 (13.4%) ... → 정치부 (3.2%)

한국 언론과 여성 장관

- 역대 여성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3개월... 박양실 (보건복지, 10일), 손숙 (환경, 32일)
- 여성장관에 비협조적인 언론
- 업무 능력보다 사적 이야기나 스캔들 등으로 평가
- 차별적 어휘 사용
- 수동적 묘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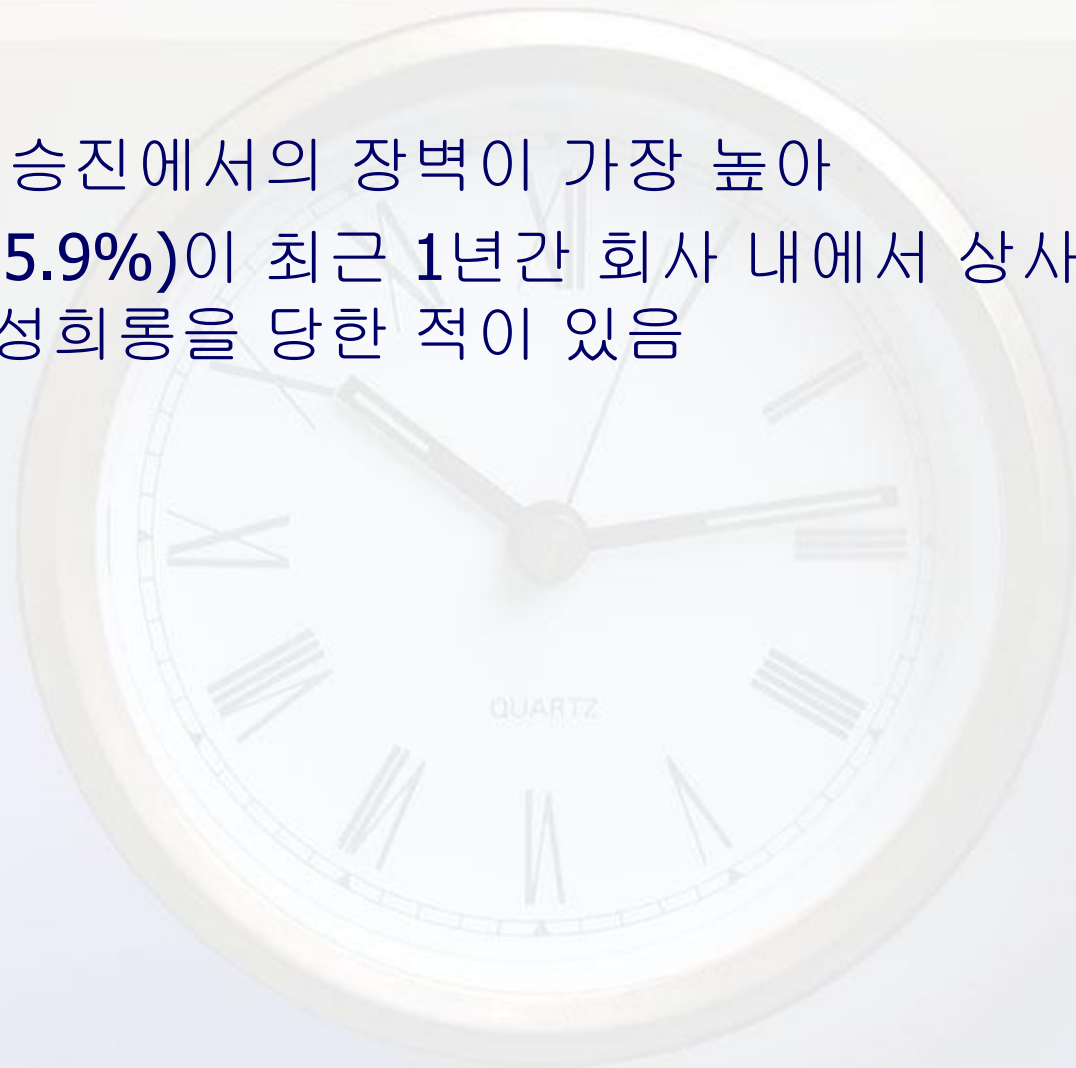
김숙희, 황산성 장관 언론 보도

- “황장관 기자회견서 울음” 조선, 93년 4월2일
- “여장관의 눈물” 조선 4월3일
- 황 환경처 장관의 눈물” 동아 4월2일
- “황산성 환경처, 기자 질문 공세에 눈물’ 한겨레 4월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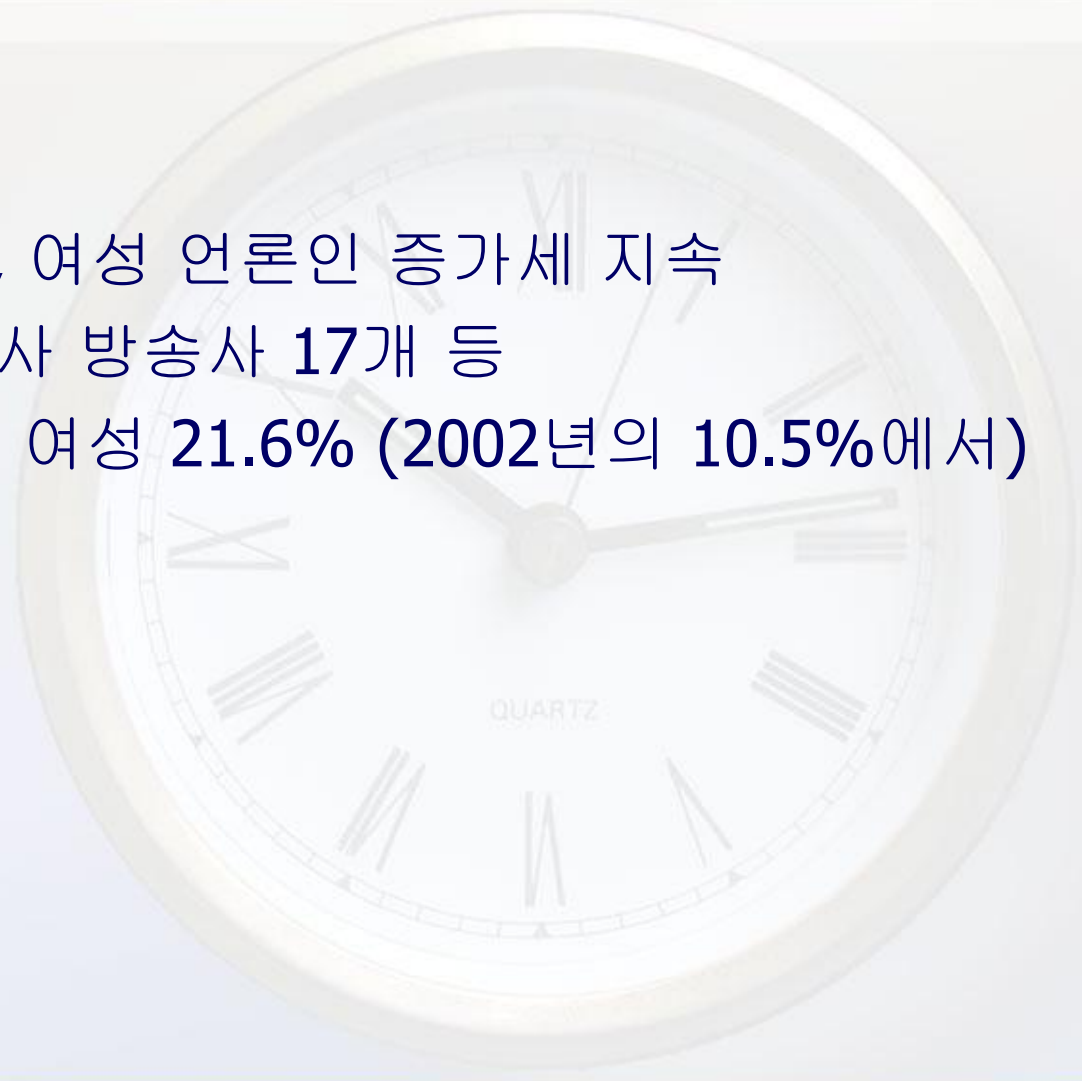


여기자 대상 조사 결과 (2001, 신문과 방송)

- 부서 배치와 승진에서의 장벽이 가장 높아
- 절반 이상 (55.9%)이 최근 1년간 회사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게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음



- 2005년
- 인터넷 신문, 여성 언론인 증가세 지속
- 신문사 64개사 방송사 17개 등
- 남성 78.4%, 여성 21.6% (2002년의 10.5%에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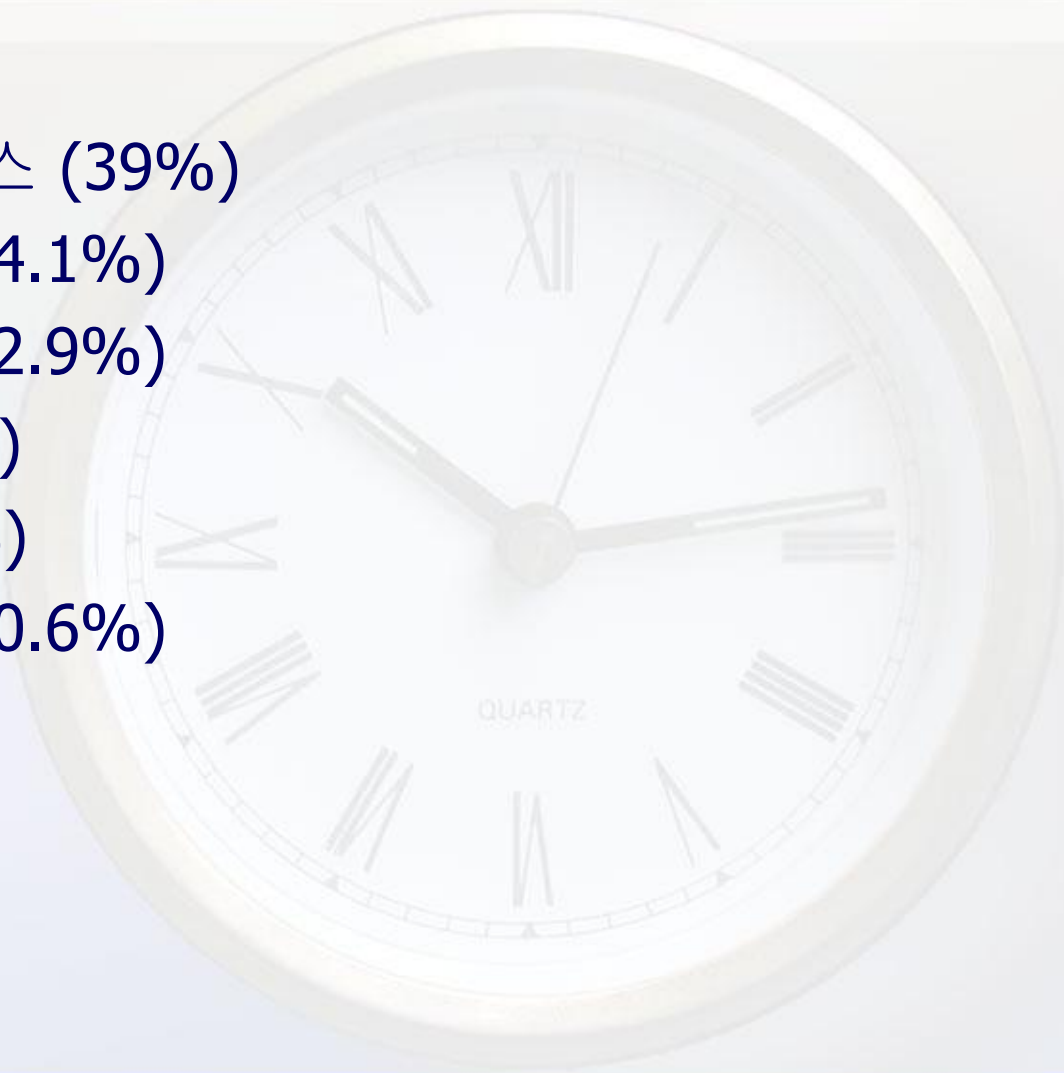


2009년 조사

- 9개 일간지, 연합뉴스, 2개 경제지, 방송3사 등 19개 언론사
- 총 693명으로 17.2% ← 10.5%
- 간부는 8.2% ← 6.6%
 - 차장급 11.8% ← 9.8% (전체 언론사 차장 대비)
 - 부장급 5.7% ← 4.2%
 - 부국장 2.3% ← 5.8%
 - 국장 7.9% ← 2%
 - 임원 1% ← 0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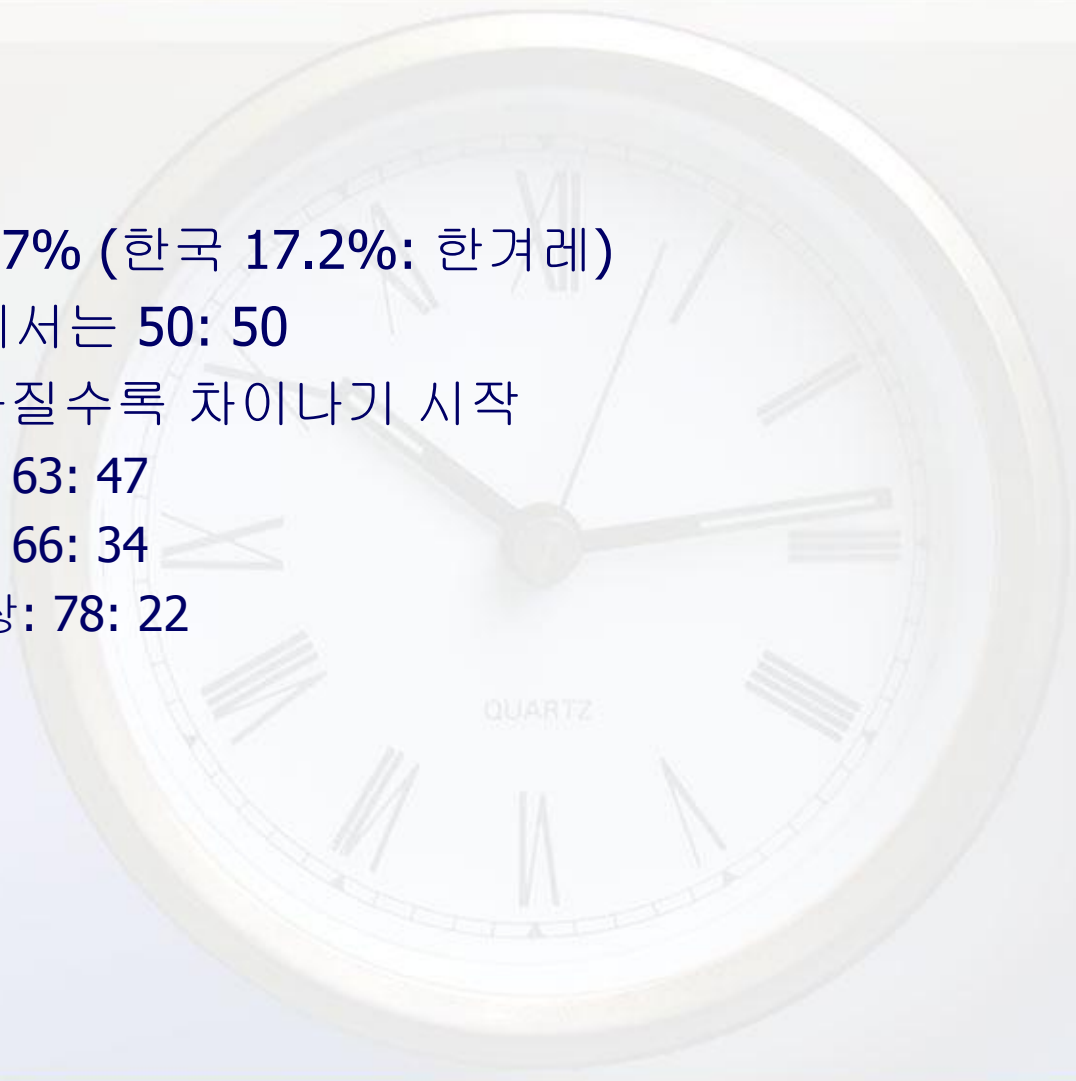
매체별

- 코리아타임스 (39%)
- 경향신문 (14.1%)
- 서울신문 (22.9%)
- KBS (22.3%)
- YTN (21.6%)
- 중앙일보 (20.6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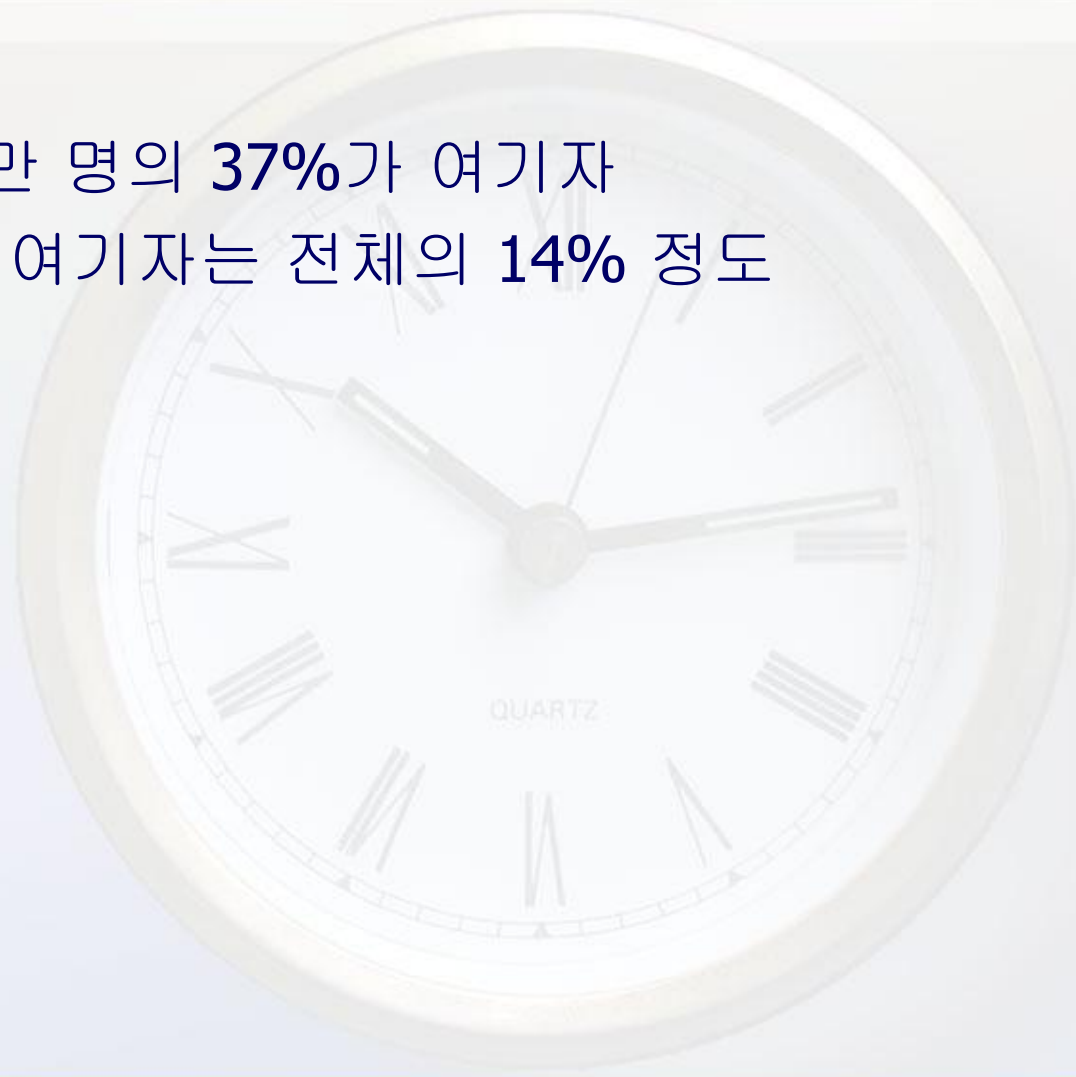
외국 미디어 조직에서의 여성

- 미국
 - 여성 비율 37% (한국 17.2%: 한겨레)
 - 30세 이하에서는 50: 50
 -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나기 시작
 - 31-40세: 63: 47
 - 41-50세: 66: 34
 - 50세 이상: 78: 22



프랑스

- 전체 기자 3만 명의 37%가 여기자
- 국장급 이상 여기자는 전체의 14% 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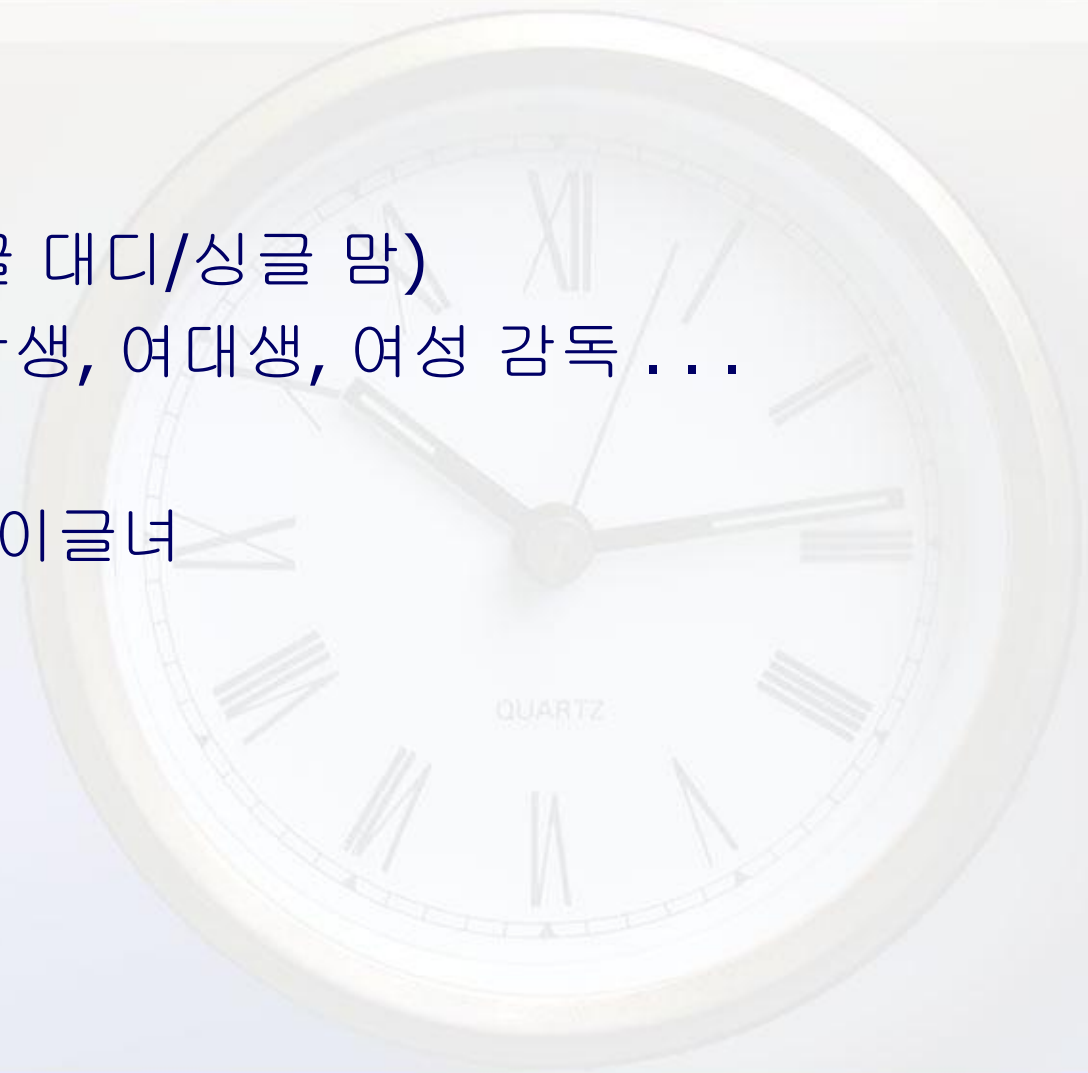
여기자 vs Newsmen

- Man vs. Woman (성 차별적 언어)
- Newsmen →
- Newspeople
- Media personnel
- Newsworkers
- Media communicators
- Professional communicator
- Media workers
- News making players



성차별적 언론 보도 표현들 (2011년 5월 4일 기자회견보)

- 미망인
- 미혼모 (싱글 대디/싱글 맘)
- 여교사, 여학생, 여대생, 여성 감독 ...
- 얼굴마담
- 꿀벅지 & 베이글녀



대안들

- 여성 할당제 통한 여성 인력 확대
- 고용 차별 개선
- 지속적인 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
- 여성 관련 보도 가이드 라인 마련
- 옴부즈맨,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

